

연해주에 동방의 새해가 다가왔다

2월 20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새해를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이 축제를 조직했다.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인 니콜라이 김은 환영사에서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과 사회통합에서 전통문화가 지닌 막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이자 우수리스크시 행정부 통문화 보존의 중요성과 사회통합에서 전통문화가 지닌 막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모국 땅에 대한 사랑, 집안 아궁이의 신성함, 노인 존경, 노동에 대한 존중, 건강한 삶의 방식, 간단하고 영원한 인간적 기쁨을 인정하는 능력 -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치가 모든 민족들에게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우

리의 다민족국가 러시아에서 이 명절이 국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행사의 개막식에는 연해주 입법회의원 알렉산드르 코스텐코와 세르게이 이센코, 우수리스크시 행정부의 수장 예브게니 코르즈, 우수리스크시 두마 의원 블라디미르 리, 우수리스크시 두마 부의장 빅토르 프리 아우프 등이 참석했다.

축하 행사에는 나호트카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의 김순길 영사,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이석배 총영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총영사관의 부영사 우치다 테 씨 등이 참석했다.

초대 손님 중에는 연해주문화전문학교의 학장인 예브게니야 프로베이콜로바, 지역 및 각 민족문화사회조직의 대표들, 연해주 민족문화사회조직 ‘연해주의 벨로루시’ 회장 니나 피구르스카야, 파르티잔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수찬’의 회장 알렉산드르 김, 타타르와 바시키르족 사회조직 ‘투간 일’의 회장인 아흐탐 하스비우린 그리고 우수리스크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대표 이시한 발란 등이 있었다.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간부회가 행사를 조직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었다. 그 회원인 아뉴타 허가이, 알렉 김, 로베르트 리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선 사업의 정기적 후원자이다.

음악무용단인 ‘아리랑’과 북양상블이 고려사람들의 민족음악과 무용을 포함하는 콘서트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러시아와 타타르 민족의 멜로디도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타티야나 리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트베리에서의 설날

러시아의 다른 민족들처럼, 고려사람들에게도 민족 명절이 적지 않다. 즉 정월대보름은 음력 첫 번째 달의 15일로 그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여름철 명절로는 단오가 있다. 추수와 선조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추석과 다른 명절들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는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이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맺어진 1991년부터 우리나라 도처에서 설날이 다시 태어났다. 러시아연방에 밀려드는 정보의 물결 및 국경 개방과 동시에 잊혀졌던 명절들이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트베리에서 처음으로 설을 쇠는 것은 1994년이며, 그때부터 지속

적으로 설맞이를 하고 있다. 설맞이는 언제나 광범위하면서도 밝고 즐겁게 치러진다. 대체로 설맞이 행사는 수도인 베르호네볼지예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크라스나야 노비라는 시골마을의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한 카페에서 진행되는데, 그 지역의 고려인 사업가는 자신의 소유인 이 카페를 디아스포라 기념행사를 위해 자신의 동포들에게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

트베리에서 설 명절 행사는 2월 23일에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민족전통요리들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앞으로 트베리시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전통에 따라 트베리시고려인민족문화자

치회 회장인 드미트리 최가 개회를 선언했다. 그 뒤를 이어 트베리 주정부 기관의 홍보활동부서 책임자 안드레이 가가린, 주지사 고문 콘스탄틴 오시포프, ‘공정한 러시아당’ 소속 국가두마 의원의 보좌관 표트르 볼코프 등이 설맞이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말을 들려주었으며, 모든 이들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

했다. 85세의 베테랑 허환배 씨는 고려말로 축하인사를 했으며, 젊은 아마추어 작곡가인 7학년 학생 비탈리 박은 고려말로 노래를 열정적으로 불렀다. 마이크를 잡은 트베리의 변호사 알렉세이 박은 설날과 새해 차례의 역사를 얘기해 주었다.

저녁 모임에서 트베리 시민 릴리야 볼코바와 예브게니 김이 설날을 기리는 시를 낭독했다. 리디야 박과 빅토리아 박은 고려말과 러시아어로 솔로 곡들을 불러 참석자들을 열

렬하게 맞이해 주었다. 고려인 여성들이 조국수호자의 날에 홀에 앉아 있는 남자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축하와 헌정의 축제일 운문을 들려주기 위해 등단했다. 짧은 풍자시를 낭독한 여성들은 “우리는 그대들의 행복을 원합니다!”라는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유머와 상상력으로 직접 개사하여 남성들에게 헌정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특별한 축하 방식은

그 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던 여성들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았던 바, 노래에 대한 답변으로 “여성을 위하여!”라는 건배를 제의했음이 분명하다. 물론 서서 말이다.

음력 설날과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리는 의미에서 건배가 있는 후 많은 사람들의 도발적인 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행운과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댄스 프로그램

에는 왈츠, 탱고, 카프카즈 민속무용, 유대인 민속음악 ‘7-40’ 및 다수의 다른 무용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춤에 흥미가 없는 일부 사람들은 역시 자신들에게 맞는 다른 것을 찾아서, 홀의 한쪽 구석에서 장기를 두었다.

축제는 5시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이들이 만족해 했다. 트베리시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의장 스타니슬라브 박과 디아스포라 활동가 이고리 노가이 등의 선도자들이 축제에 색조를 입혀주었으며, 자신들의 예를 들어 동포들의 감정을 타오르게 했다. 트베리시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으로 축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모임을 조직

한 이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전달한 드미트리 최가 저녁 모임을 결산하며 끝맺음했다. 사람들은 만족하며 행사를 떠났다. 전통에 따라 특별히 예약된 차량으로 베테랑들을 집까지 배려해주었다.

러시아의 다른 고려사람들처럼 트베리의 고려사람들이 한국에서 특별한 차례나 엄격한 의식에 따라 설날을 보내는 것처럼 설날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실하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동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쉬며 향후 몇 달 동안 이어질 활력을 충전했다는 사실이다.

표트르 볼코프

파рти잔스크

2015년 파티잔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수찬’은 가족처럼 환영하며 즐겁게 음력 새해인 설날을 축하했다.

주빈 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순길 부총영사, 파티잔스크시 두마 의장 호멜레프 등이 있었다.

알렉산드르 김은 “한인에게 있어 동방의 새

해는 특별한 명절이다. 단지 모든 가족들이 선조들을 기억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명절은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바, 부흥, 새로운 가능성, 성공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 주빈들은 새해맞이 건배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기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예술단원들은 저녁 내내 러시아말과 고려말로 선동적이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 관객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관객들은 음력 새해맞이 축제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으로 여겨진다. 행사를 찾은 손님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며, 잘 쉬면서 향후 몇 달 동안 이어질 활력을 충전하는 동시에 멋진 콘서트를 즐겼다.

‘고려신문’ 홍보과

우수리스크 노인단의 설날



연해주고려인민족자치회 산하 노인회 ‘노인단’은 지난 2월 21일 음력으로 2015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음력 새해는 우리 모두가 봄기운을 느껴 자연을 깨닫도록 만드는 선구자이다.

바로 말 그대로 만개한 벚꽃이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문화센터의 대강당을 장

라디보스토크, 파르티잔스크 등지로부터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방문한 노인들 역시 손님으로 참석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연주된 매혹적인 곡목들이 행사를 찾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양상블 ‘아리랑’, 양상블 ‘고려’,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소속 북양상블 그리고 다른 행사 참가자들은 관객들에게 진정한 명절을 선사했다.

‘노인단’의 단원들은 음력 설날 행사가 처음으로 이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얘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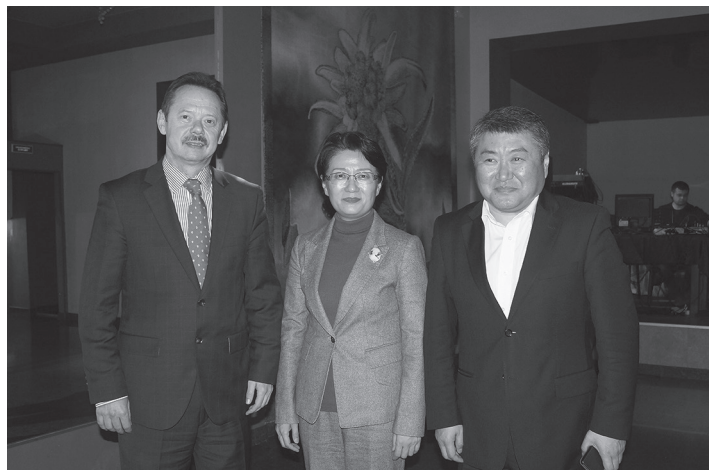
‘고려신문’ 홍보과



알좁에서의 축일

알좁시의 고려인들은 2월 20일 음력 설날을 맞아 축제를 했다.

저녁 모임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따뜻



하고 친밀하게 이루어졌다. 젊은이들은 새벽 2시까지 댄스파티를 했다. 한국민속무용 양상블인 ‘칠선’, 무용양상블 ‘나제즈다’ 등이 공연했으며, 스

베틀라나 김은 한국 노래를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은 한국민요 ‘아리랑’을 각각 들려주었다.

알좁시 시의회 의장, 이고리 체메리스 연해주 입법회 의원, 안드레이 김 알좁시 시의회 의원, 지나이다 김 블라디보스토크시 시의회 의원, 국립극동수산대학교 총장인 기술공학 박사 게오르기 김 교수, 루스키섬에 위치한 연방대학 내 수석 유아신경외과 의사 알렉 박, 연해주 내정관리과 과장

베라 예브투센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볼쇼이 카멘 그리고 파르티잔스크에서 방문해 주신 이들이 참석하였다.

타티야나 김

나호트카 출신의 태권도 선수들이 금메달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였다



나호트카 출신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국제태권도연맹이 중국의 왕진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에서 선수단 통산 첫 번째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가했다. 크리스티나 김, 알렉산드르 기발로, 키릴 파블로프, 세르게이 김, 레오니드 고로노크 등의 선수들이 나호트카팀 소속으로 참가했다.

국제태권도연맹 소속 나호트카시 태권도연맹의 수석코치인 드미트리 양은 이번 대회의 결과가 젊은 선수들에게 성공적인 새해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았다.

안나 칼루기나

이스라엘이 조국이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리손 레치온 시에서도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던 가족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정의 가장인 레오니드 심은 아직 소연방 시절이던 1988년 코세프스키 원수 명 움스크고등탱크공학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타시켄트 근교에서 군복무를 하던 도중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인 아름다운 알라를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딸과 아들 등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가 중령으로 예편한 시점에 자녀를 데리고

텔아비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드렸고, 때마다 부모를 찾아온다. 부모는 재능있는 안무가인 딸 역시 대견해하고 있다. 수년 전 딸 울리야는 한국으로 초빙되어 그곳에서 직장을 잡았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레오니드 심 씨가 이주한 이후 타시켄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군사학교 동창들과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레이니스 심 씨는 “2008년이 제 1차 학교를 졸업한

페타크 티크바에서 온 타시켄트 사람들

페타크 티크바 시에도 예전에 타시켄트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생활하며 일하고 있다. 아르투르 송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아르투르 씨 역시 소연방의 해체 이후 부인인 예브게니야 그라니크 씨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문제없이 직장을 구했으며 집도 샀다. 이스라엘에서 딸 비올레타를 낳았는데, 얼마 전에 만 12살이 되었다. 똑똑한 아이이며, 학교 공



한 민족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로 들어 보겠다. 수상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비율은 문학, 과학 그리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높다. 유대민족의 이런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닌 지적 재능의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그들이 헤브라이즘의 법률적, 종교·도덕적 명제로서 미쉬나와 게마라를 통합하여 양자 모두를 아우르는 탈무드를 배우는 것에 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배우고, 탈무드는 그들이 지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전 소연방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고려사람들이 다행히도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는 탈무드를 자기 자신을 위해 흥미롭게 그리고 득이 되도록 배우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 에레츠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의 법률 선생들

에 의해 약 8백년에 걸쳐 진행되어 불문법 성립으로 이어진 토론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독특한 저술은 정독한 뒤 책상 위에 항상 펼쳐져 있는 책이 된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던 예루살렘의 주민인 마리아 최는 이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탈무드가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고려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라고 말했다. 우르젠치 토박이인 그녀는 타쉬켄트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며, 90년대에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마리아는 계속해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 전통에서 가족 존중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샤바트의 식사 및 다른 전통이 그것을 확연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헤브라이즘은 연장자들을 존경으로 대하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역시 고려사람의 정신 속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 전통은 자식 교육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아이들 교육에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부모님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역사적 모국에서도 탈무드를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한국 대사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는 탈무드의 번역본이 있다고 합니다. 아바에와 라바는 바빌론의 베이트 미드라쉬에서 벌였던 자신들의 논쟁을 수 백년이 흐른 뒤 동아시아에서 배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기념일에 가지고 온 달걀에 대한 탈무드의 얘기가 한국 초등학교 의무 교과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트르 볼코프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정착한 그는 취직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자라나는 아들 미로슬라프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인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에서 복무 중이다. 이미 지휘부로부터 하나 이상의 훈장을 받았다. 두 부모는 그런 아들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아들은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월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움스크의 우리 모교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비행기 편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그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었다. 작년에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친구들과 지인들을 방문했다고 한다.

부에도 부지런하고, 근면한 아이이다. 그에 더해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 집의 가장은 카페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 부인은 시립 공공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족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서 타시켄트로 귀국할 예정이 없다.

인생의 스승 탈무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

